

주거설비의 진보와 주거생활의 기술화 측면에서 본 한국 주거의 근대화 논의

-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아파트 광고를 중심으로 -

Discourse of Modernization of Korean Housing: The Transition of Housing Facilities and the Technicalization of Housing Life

- Content Analysis of Advertising Materials -

전남일*
Jun, Nam-Il

은난순**
Eun, Nan-Soon

박진희***
Park, Jin-Hee

이장섭****
Lee, Jang-Seob

김소연*****
Kim, So-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housing facilities have been progressed, how housing life has been technicalized and which factors contributed to the modernization of Korean housing in the economic development era. Review of advertising material for apartment sales in the newspaper from 1970s' to the 1990s' are mainly utilized to follow up the changes of kitchen equipment and furnitures, bathroom equipments, heating and cooking facilities and their fuel system,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ystem as well as security and intelligent system. However, high technology in apartment was a symbol of modern housing in each time. The improvement of housing facilities brought about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in household works. In other words, housing space plays as "Living Machine". And appearance of new technology systems led to a pluralistic activities in the home. As well as improvement on the material environments accelerated the individualization phenomena in housing space.

Keywords : housing facilities, modernization, technicalization

주요어 : 주거설비, 근대화, 기술화, 설비, 광고, 아파트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세기 말 개항 이후 서구의 주거양식이 한국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한국의 주거문화는 괄목할만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른바 근대적 사회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주거문화 역시 근대화를 표방하며 가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주택의 기능적인 면에서 근대화를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주거관련 설비와 주생활관련 기술의 향상이었다. '사는 기계로서의 주택'은 단순한 기능 개선의 차원을 넘어 직, 간접적으로 우리의 주거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특히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된 70년대

이후부터 9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주택의 양적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주택의 질 또한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진 때이다. 이 시기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 졌으며, 그것이 곧 근대화의 첨병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고 그러한 인식은 주거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물질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영향으로 주거의 질적 향상은 곧 주거의 설비와 기능의 향상에 직결되었고 그것은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 되었다. 이렇게 주거의 발전이 설비와 기술력에 의존하는 경향은 주거문화가 하루아침에 급격한 변화를 겪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표면적인 것들만이 기형적으로 발달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주거의 유형은 점점 더 획일화되고 주거 공간은 더욱 단조롭게 변화하였는데, 그 안의 설비들은 더욱 기능 지향적으로 첨단화되어 온 것이다.

그동안 주거의 근대화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인 측면, 일상사적인 측면, 공간적인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조명되어 왔다. 이때 주거설비의 발달과 기술적 진보 역시 그것의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부교수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정회원,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본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한국근현대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음(과제번호 KRF-2003-073-CS1001).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한국 주거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큰 축을 형성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주거공간의 설비, 시설의 변화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탄아궁이에서 연탄보일러로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주부들의 가사노동 경감을 가져와 이전과는 다른 주부의 생활양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즉 기술적 측면은 주거 생활, 공간, 일상 등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주거의 기술화가 근대적 생활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택은 그 속성상 하위계층의 문화 및 물리적 특성이 상위계층의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방하고 추종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상위계층의 주거는 하위계층의 그것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보다 개선되고 진보된 것을 찾아 항상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도입하게 된다. 이때 새롭게 도입되는 주택의 설비는 상위계층에게는 진보된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표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위의 계층에서도 확산되어 일반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시대의 첨단을 주도하는 설비 및 기기는 이후에 곧 보편화될 주거문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도입 초기 중산층 이상 계층의 주거로서 기능의 현대화를 표방한 아파트는 그에 걸맞게 주택 설비에서 이전 주택과 차별성을 갖는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신식'으로 꼽히는 수세식 변기, 항상 뜨거운 물이 나오는 세면대와 욕조가 구비된 욕실, 거실과 수평선상에 놓인 싱크대 등의 시설·설비들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낡고 불편한 시설로 가득한 대부분의 단독 주택 유형에 비해 선진화된 현대식 주거 유형으로 수용되어갔다. 또한 70년대 한강아파트와 반포아파트를 도화선으로 아파트가 고급 주택으로 인식되면서 이들 아파트의 설비는 기존 아파트가 지향해야 할 설비가 되었다. 이렇듯 설비의 첨단화는 한국 주거가 지속적으로 모방과 동경의 과정을 거쳐 지향해 온 변화의 큰 줄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개발 시기 이후 한국의 주거 발달 과정에서 난방 설비, 통신 설비 등의 변화가 우리 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것이 주거의 근대화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설비 변화가 주생활 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할 필요성은 최근 기술사회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술과 사회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에서 찾고자 한다. 토마스 휴즈(Thomas P. Hughes)와 같은 기술사회학자는 '기술시스템'(Hughes, Thomas P., 1983) 이론을 주창하며, 전기와 같은 기술 대상이 어떻게 사회의 교육제도, 정치 제도, 문화 등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기술과 사회는 '이음새 없는 망'으로서

상호 공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학사회학자이자 기술 사회학자이기도 한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서로 분리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기술과 사회라는 개념을 벗어나 기술과 사회가 구분이 불가능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에 따르면 난방 설비, 주방 설비와 같은 기술 대상 요소가 결여된 사회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사회-기술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을 주장한다. 이에 따르자면 우리의 주생활 역시 주택의 여러 기술적인 요소들과 동떨어져서 언급될 수 없는 것이고, 이들 요소들은 우리 생활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술사회학자 루스 코완(Ruth S. Cowan)은 가사노동이 주거 설비, 사회 인프라, 가전제품의 발달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기술사회학 논의들을 빌어 주생활과 아파트 설비, 시설 변화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그것이 어떠한 생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발간된 일간지에 실린 신문 광고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 설비 및 시설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인 이들 설비 및 시설 변화가 주거 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하게 참조한 일간지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이다.

70년 이후는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건설, 분양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이때부터 아파트 분양 광고가 신문 지상에 출현했다.¹⁾ 아파트 광고의 대부분이 분양 방식, 분양 시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설비나 시설에 대한 안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첨단 설비를 추적하기에는 매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는 도입초기 개별적으로는 설치하기 쉽지 않았던 건축적 설비들이 대량건설과 함께 비교적 수월하게 도입될 수 있었다. 70년대 이후 가장 먼저 최신의 주거 설비를 선보인 것도 아파트를 통해서였으며, 이것이 단독 주택을 비롯한 다른 주거유형에 있어서의 설비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고찰의 대상은 난방, 부엌, 욕실 설비, 그리고 '첨단' 시설로 분류되는 안전관리시설, 정보통신시설, 인텔리전트시스템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계량적인 분석 방법보다는 내용을 분석하는 문헌과 자료해석을 통한 내용 분석 방법(Content Analysis Method)을 기본으로 하였다.

1) 신문 광고를 통해 주거 가치 변화를 연구한 신화경에 따르면 1960년대에 아파트에 대한 광고는 6건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설비 변화에 이들 6건 광고가 내용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II. 아파트 광고로 본 주거 설비의 변화

1. 부엌가구설비

부엌가구설비와 관련된 70년대 광고의 특징은 주로 입식의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식 부엌’, ‘싱크대’는 아파트 부엌의 상징처럼 광고에 예외 없이 등장하였다. 여기에는 싱크대라는 용어 자체가 서구적인 입식생활을 대변하는 기호로 통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는 더욱 개선된 부엌설비들이 등장하면서 가사노동의 절감과 주거생활의 입식화가 가속되었다. 특히 입식부엌은 아파트 초기에는 여러 개로 나누어진 작업대가 나열된 수준이었으나 70년대에는 작업대가 일체화된 싱크대가 등장함으로써 외관상으로도 기능상으로도 혁신적인 변화를 보였다. 당시 오리표 싱크대라 불리는 입식 부엌이 부뚜막을 대신하여 보급되었는데, ‘주부의 일손이 즐거운 편리한 부엌설비’란 76년도의 여성지 광고(여성중앙, 1976년 5월호)를 통해서도 입식부엌이 보편화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부엌에 ‘가구’가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개수대와 가스렌지 등의 설비가 일체화된 싱크대는 80년대에 이르러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광고에서는 단순한 싱크대에 유명한 주방가구 회사 이름이 붙은 싱크대가 등장하였고, 후반에 와서는 원터치 레버와 시스템키친이란 용어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는 주택의 질적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가장 가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설비부분이었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부엌설비였기 때문에 더욱 각광받았다.

모든 부엌 설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된 시스템키친은 90년대 이후에는 점차 빌트인 시스템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부엌가구설비에 대한 광고가 보다 적극적으로 등장한 것은 90년대인데, 이때가 되면 ‘싱크대’란 용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빌트인 형식의 주방시스템과 식기세척기 등 일체형 주방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설거지의 기계화는 다른 어떤 가사노동 형태보다도 늦게 등장하였는데, 이는 부엌공간의 제한과 고가의 비용에 그 원인을 두고 있었으며(이기영 · 김성희, 1995), 그런 고가의 기기가 제공되는 아파트는 그 희소성만큼 아파트생활을 돋보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빌트인 가구는 주방가구와 가전제품이 하나로 일체화됨으로써 주방을 더 넓고 산뜻하게 연출될 수 있었다. 빌트인 가전제품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레인지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가전제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90년대 초반에는 시스템키친을 설치한 가정이 10명 중 1명 정도로 매우 적었지만 97년의 경우에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으며, 월수입 301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경우 시스템키친을 설치한 가정이 12%에서 20%로 급격히 증가했다(제일기획 마케팅연구소, 1997). 이러한 시스템키친은 좀 더 세련되게 부엌의 모양

을 바꾸어 갔다. 부엌 싱크대는 가구로서의 개념이 강해졌으며, 기술의 발달로 시스템화, 공업화 되어 생산됨으로써 대량생산되었고 급속도로 사용이 확산되었다.

2. 욕실설비

주거공간에 위생관념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욕실설비의 발달로 가능했다. 초기 아파트의 대명사가 되었던 마포아파트는 부엌에 가깝게 욕실이 따로 배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는 일체 좌식변기가 장착되었다. 70년대 아파트 광고에는 아파트에서 위생설비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하듯이, ‘욕실’, ‘욕조’ 등이 강조되었고 ‘화장실’이란 용어가 적극 사용되었다.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듯한 이미지의 뒷간이나 변소란 용어 대신 화장실이란 용어의 사용은 밝고 우아한 느낌을 주었으며, 이곳에서는 용변을 볼 뿐 아니라 몸을 씻고 화장도 하게 되면서 주거공간 내의 중요한 공간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동양식 대변기를 사용하던 단계, 연탄보일러나 연탄아궁이 아파트에서 좌식 대변기로 구분하여 사용하던 단계 이후 1976년부터 주택공사는 모든 아파트에서 입식의 양식대변기를 설치함으로써 양식대변기는 보편적 설비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좌식대변기 설치 이후 10여 만에 바뀐 주거생활의 혁신적 변화였다(김영호, 2005).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도시 인프라로서 상하수도 설비가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아파트의 욕실은 변소의 기능과 목욕 등 위생의 기능, 치장의 기능이 합쳐진 컴팩트한 욕실로, 틀에 짜여진 듯한 사각형에 욕조와 세면대, 양변기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이었다. 80년대 초반까지도 중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는 욕조나 고급 양변기에 대한 문구들이 등장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수입 범랑 욕조’,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도꼭지’ 등으로 욕실에 쓰이는 도구들의 재료가 고급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미 욕실이 아파트의 기본 설비가 되어 더 이상 욕실 자체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다. 중소 아파트 광고에서는 욕실과 연관해서 ‘온수겸용 보일러’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뜻한 물을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난방연료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욕실의 용도가 사용화(私用化) 됨으로써 그 개수도 1개에서 점차 2개 이상으로 공급되어 ‘국내최초 안방전용 화장실 시설’이라는 광고문구가 나타났다.

80년대 도시 중산층은 목욕은 여름에 매일, 겨울에 주 3회 정도 하는데, 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조 밖 목욕이 약 80%를 차지하며, 온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공중탕 이용률이 60%가 넘었다(전완길 외, 1995). 즉, 독특한 목욕 문화로 인해 화장실에서 목욕행위는 그때까지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에 와서 아파트 욕실에 대한 설명은 그곳에 장착된 설비, 즉, 비데나 샤워부스 등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설비자체의 차별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팀 사우나’, ‘건강 좌욕조’ 등 설비로 욕조는 단순히 몸을 씻는 위생설비가 아니라 새로운 도구들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곳으로 기능적으로 진화하였다.

이에 따라 목욕의 문화는 90년대에 와서 점차 개별화된 목욕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인다. 점차 욕실면적이 확대되었고, 욕조가 설치된 화장실과 치장하는 곳으로 분리되기도 하였다. 욕실의 유형 역시 점차 다양화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목욕방식은 욕조내의 입욕방식에서 벗어난 형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95년 이후 급증하였다. 또한 욕실과 면해서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배치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여 욕실은 습한 공간이 아닌 건조한 공간으로 점점 변화하였다.

3. 난방 · 취사설비

난방설비는 연료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되어 왔는데, 주택의 에너지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아파트 광고를 통해서도 추적이 가능하다.

연탄은 196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966년 연탄과동을 겪으면서 보조연료로서 석유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이기영 · 김성희, 1995). 1968년 아파트에 고급 주택의 이미지를 가져다준 힐탑 외인아파트가 벙커C유를 사용하는 중앙식 스팀난방을 채택하게 되면서 스팀난방이 새로운 난방 시스템으로 확산되었다(대한주택공사, 1995a). 또한 증기를 이용하는 스팀난방 대신에 온수를 이용하는 중온수, 고온수 중앙난방은 70년에 건설된 한강맨션과 한강 외인아파트에 도입되면서 70년대 중앙식 스팀난방과 더불어 주요 난방방식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70년대 아파트 광고에는 연탄보일러와 유류를 이용한 스팀난방, 중앙식 온수난방 시스템이 동시에 소개되고 있었다.

연탄보일러는 연탄가스 중독의 문제점에 대처하고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60년대 말 나왔는데, 70년대까지도 비용절감의 이유로 중소형 아파트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탄보일러는 보통 온돌방의 바닥에는 파이프를 깔고 거실이나 침대식 방에는 라디에이터를 설치하였다. 이 시기에는 거주자들의 요구와 선호를 반영하여 서양식 난방방식과 온돌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1970년대 말부터는 대규모 아파트가 도입되면서 소규모 개별난방 개념을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집단난방을 위한 보일러의 수요 또한 급증하였다. 또한 거주자들이 원하는 근대적인 입식의 주거공간에서도 고유의 온돌난방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형태인 파이프온돌 난방의 아파트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는 라디에이터에 의한 난방에 의존했던 거실에도 파이프온돌 난방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 연탄보일러 설치에 대한 내용은 서서히 줄어들고, 중앙공급식 난방에 도시가스 시설이 아파

트 광고의 주를 이루게 되었다. 물론 80년대 초에도 ‘실속 있고’, ‘관리비 부담도 없고’ 취사를 겸할 수 있는 연탄보일러는 지속적으로 광고면에 등장하고 있었지만, 횡수는 해마다 감소해갔다. 1980년 건설부 통계에 의하면 아파트 난방은 서울의 경우 중앙 집중식 55.8%로, 다음이 연탄아궁이 23.3%, 단독 연탄보일러 18.3%, 단독 기름보일러 2.6%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건설부, 1980). 1983년에 이르면 실제로 단독 연탄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서울 지역 아파트는 15.3%로 더욱 감소하였다.²⁾

80년대 후반으로 가면 난방용 석유와 더불어 중요한 연료원으로 부상한 가스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의 경우는 이미 1983년에 도시 가스 공급 비율이 51%에 달하고 있었고, 특히 인천이나 경기지역 아파트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83년의 3.5%에서 86년 30%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서 인천지역의 아파트 광고에서는 ‘도시가스공급’, ‘중앙식 가스공급’ 등의 문구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었다. 도시 가스, LP 가스는 주로 취사용으로 도입되었지만 난방에도 이용되어, 1989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가스보일러 난방 비율이 단독 기름보일러 비율에 근접할 정도로 늘어나 있었다(대한주택공사, 1989).

1990년에는 기존의 난방방식에 연료가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날로 심해지는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의무적으로 아파트와 고층건물에서는 기존의 연료를 LNG연료로 대체하도록 정부에서 정한 것이다(조선일보, 1989년 12월 6일 2면). 이에 따라 가스난방 비율은 90년대에 이후 더욱 증가하여 1995년에는 26.2%, 1999년에는 38.6%로 늘어나 중앙공급식 31.5%를 앞지르게 되었다(대한주택공사, 1995; 1999).

즉, 80년대가 중앙공급식 난방이 확산해가고 있었던 시기였다면, 90년대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증가하면서 취사뿐만 아니라 난방에도 가스가 이용되어 가스보일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갔던 시기라 할 수 있다.³⁾

한편 연탄보일러를 이용하여 온수공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1982년부터이다. 또한 1984년 부산 방미아파트에서는 난방과 급탕 겸용의 개별식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고, 1988년 군산 소용지구에 심야전력을 이용한 전기 온수보일러에 의하여 온수공급이 시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2) 인천이나 경기 지역의 경우, 연탄 단독 보일러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서, 아파트 난방 설비의 경우 지역차가 현저했다. 1983년도 인천 아파트의 42.9%는 연탄 단독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는 이 비율이 30.4%로 인천보다는 낮았다. 신문 광고에 등장하는 인천 아파트의 경우 연탄보일러 내용이 자주 등장했던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대한주택공사(1983), 주택통계편람)

3) 아파트의 난방 방식의 변화를 전국 주택 상황과 비교해보면, 1989년도 전국 아파트의 41.5%가 중앙공급식 난방인데 비해 전국 주택의 48.5%가 연탄보일러 난방이었다(대한주택공사(1997), 주택통계편람, pp.114-115.).

석유와 가스를 주 연료로 시작하여 중앙공급식 난방과 도시가스 시설이 일반화되면서 90년대 이후의 아파트에서는 취사, 난방 설비가 더 이상 아파트의 가치를 표현해주는 것이 되지 못했다. 이런 까닭에 90년대 아파트 광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구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취사설비의 발달역시 연료 사용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1970년대 이후 LPG 가스와 전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등과 같은 새로운 가열장치들이 개발되었다. 70년대부터 싱크대 외에 가끔 대형평형의 아파트 광고의 경우 부엌가구에 내장된 가스오븐이나 가스렌지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였으나 흔한 경우는 아니었고, 이 시기에는 가스오븐이나 가스렌지가 극히 일부 아파트의 기본 설비였을 뿐이었다.⁴⁾ 1975년에 가스를 취사에 사용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0.8%에 지나지 않았지만 1980년 6.1%, 1990년 81.9%로 점차 늘어났다(김성희, 2002). 이러한 변화와 함께 80년대에는 가스렌지 받침대, 가스대, 렌지 후드 등 가스 설비들이 대형 평형이 아닌 중소 아파트 광고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6년 도시가스와 LP가스 보급이 이미 75%에 달하고 있었고, 1989년에는 82%에 이르렀기 때문에(대한주택공사, 1986; 1989) 이에 부응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4. 정보통신시설

주택의 현대적 기능을 상징하는 것은 앞서의 부엌설비나 난방설비만은 아니었다. 아파트가 현대적인 삶의 터전임을 드러내주는 또 다른 기술 기반은 전화설비, TV 안테나와 같은 정보통신 설비였다. 70년대 아파트 광고에는 전화선로 배선, 구내 교환전화설비와 TV공청 안테나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68년에 힐탑 외인아파트에 TV공청 설비와 자동전화교환시설이 마련되었고, 71년 대표적인 중산층 아파트로 건설된 반포아파트의 경우에는 종합 설계에 전화배선 등이 고려되었었는데(대한주택공사, 1995a), 70년대 중반이 되면 주로 거실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던 TV안테나 회선이 2개로 늘어났고, 전화도 호별 전화로 바뀌게 되었다.

텔레비전과 전화가 일상의 필수품이 된 80년대에는 이들 제품의 개인화된 사용을 반영하는 문구가 아파트 광고에 등장하게 된다. 즉, ‘집안 곳곳에 설치된 전화 회선 및 TV 안테나 회선’이 다른 아파트와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것이 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점차 개인의 생활이 중요해진 변화된 주생활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80년대 말에는 더 이상 이에 대한 광고는 보이지 않게 된다.

90년대가 되면 사회의 전반적인 정보화 붐을 반영하듯이 첨단 정보통신 설비가 아파트의 현대성을 드러내주는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90년대 이후 아파트는 사이버아파

트 등의 이름으로 불렸고 그에 합당한 시설과 시스템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공동주택에서 차별화전략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시설 설비의 품목이 위성방송, 주방라디오, CCTV 등이 되었다(이병룡, 1996). 취사, 난방 등의 가장 기본적인 설비 대신에 정보 관련 설비들이 공동주택을 다른 주택과 구별되게 하는 요소로 부각된 것이다.

90년대 아파트 분양광고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 설비였던 것에서도 이런 경향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신문 전면을 차지한 아파트 단지 사진 밑에는 대부분 광케이블, 초고속정보통신망, 위성방송시스템 설치 등의 최첨단 정보통신 시설이 언급되고 있었다. 이런 시설물들은 ‘단한 아파트에서 열린 아파트로, 단절된 이웃에서 연결된 이웃으로’와 같은 이미지와 연결되어 강조되었다(김승언·손세관, 2000).

5. 안전관리시설과 인텔리전트시스템

아파트 도입 초기의 안전관리시설은 자동화재경보기나 화재감지기 등 현재 소방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들에 국한되었다. 70년대 중반 대단지 아파트들이 등장하면서 사고로 인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제어 장치 등이 설치되기도 했고, 인터폰 호별 방송 설치도 안전과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되기도 했다(대한주택공사, 1995b). 70년대까지만 해도 아파트는 안전성 보다는 난방이나 취사에서 오는 편리성들이 강조되고 있었으므로 안전 설비의 보급은 경보기와 같은 개별 도구 설치에 머무르고 있었다.

80년대가 되면 도난이나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안전 시스템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보안용 카메라에 연결된 전자 경비시스템이 등장하고,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에 CCTV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안전시설은 90년대에 들어가서는 각종 전자 장비, 정보통신 기술과 연계되어 고도로 지능화된 시스템으로 발전해갔다. 경비실 종합관리시스템, 지문감식이나 디지털도어록, 최첨단 적외선 도난경보기, 자동화 보안시스템 등이 광고의 내용으로 등장하였다.

이들 안전설비와 더불어, 주택의 종합적인 관리,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설비들이 광고에 등장하게 된다. 홈오토메이션(HA)이 그것인데, 80년대 후반 아파트 광고에 이들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8년 대전의 금호아파트 광고에는 ‘전 세대에 홈오토메이션 설치’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사용되었던 홈오토메이션이라는 용어는 90년대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리모콘식 점등 스위치에서 원격 감침, 통합 관리 지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홈오토메이션은 다양한 방식으로 90년대 아파트에 구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설비는 첨단급 고급 아파트의 상징물로 해석되었다.

집안의 각종 전자기기는 유·무선통신을 통해 제어가 가능하고 보안·조명·온도조절 장치 등도 시스템화되어 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해졌다. 가전기기의 디지털화와 정

4) 1980년 건설부의 아파트 주거 환경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건설부(1980), 아파트 주거환경통계) 1980년에도 가스 시설이 없는 아파트가 서울에만 40%에 이르렀기 때문에 70년대의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신문광고에 나타난 연도별 시설·설비

연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분류			
부엌가구설비	부엌싱크대설비(73) · 스테인레스계 · 싱크 및 찬장(76) · 대형평형엔 가스오븐설치(76) · 가스렌지(76)	거북표싱크대(82) · 한샘주방싱크대(82) · 시스템 키친 퍼니처(88) · 윈터치 싱크레버(86)	식기세척기(92) · 빌트인 타입의 첨단주방시스템(95) · 주방TV(98) · 행주살균기(98) · 주방TV폰설비(99) · 김치냉장고(99) · 빌트인 가스레인지(99) · 빌트인(냉장고, 오븐렌지, 식기세척기 일체형)주방기구(99) · 음식물탈수기(99)
욕실설비	수세식화장실(71) · 양변기(73) · 세면기(73) · 샤워기(76)	마블욕조(80) · 고급양변기(81) · 럭키 UBR시설(82) · 스텐레스욕조(86) · 아메리칸 스타일의 일체식 세면대(88)	무소음변기(92) · 비데(95) · 초절수형 양변기(95) · 월풀욕조(95) · 샤워부스(96) · 스텐사우나(96) · 건강좌욕조(99)
취사 · 난방설비	스팀난방설비(71) · 파이프식온돌(71) · 파넬코일 난방 온돌(76) · 중앙공급식 난방장치(79) · 취사겸용 연탄온수보일러(76) · 도시가스(71) · 중앙공급식가스배관설비(73) · 개별연탄보일러(76) · 라디에타(76) · 중앙공급식 중온수보일러 시설(76)	연탄단독보일러(80) · 취사용 LPG중앙공급설비(80) · 중앙집중 난방 및 가스(80) · 라지에타 박스(81) · 도시가스공급시설(81) · 동파이프 온돌난방(82) · 스텐레스 파이프(82) · 중온수보일러시스템(82) · LNG 가스보일러(88)	
정보통신시설	TV공동안테나(71) · 구내교환전화설비(71) · 전화선로배선(73) · TV종합안테나(76)		위성방송안테나(94) · 광케이블 등 멀티미디어시스템(94) · 유선케이블(94) · 문자화상시스템(94) · 고화질 액정 비디오 프로젝터(95) · 광통신망(98) · 초고속정보통신망(99) · 위성방송시스템(99) · 화상전화(99)
안전관리시설	자동화재경보기시설(73) · 화재감지기시설(76)	투시경 부착(84) · 엘리베이터 보안용 카메라(88)	출입문 지문감식시스템(94) · 안전카드키 시스템(94) · 중앙통제관리시스템(94) · 현관 디지털도어록(98) · 자동화보안시스템(99) · 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99)
인텔리전트 시스템		홈오토메이션(88)	CC-TV 홈오토메이션(92) · 무인경비시스템(94) · 원격점검시스템(94) · 통합관리기능시스템(94) · home auto설비(98) · 차량번호인식시스템(99) · 음성인식시스템(99)
실내환경 시스템			첨단공기청정시스템(94) · 중앙집진식 청소시스템(94) · 최첨단 자동정화시스템(94) · 최첨단 자동청소시스템(94) · 중앙정수시스템(94) · 연수시스템(94) · 개별건강정수시스템(98)

()는 연도임

보통신 기술로 서비스가 향상됨에 따라 가정 내 전자제품을 홈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홈오토메이션이 가시화된 것이다. 홈오토메이션은 주거의 정보화와 편리성, 안전성, 오락성 등을 증진시키게 되었고, 단순히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된 사이버아파트를 넘어 ‘인텔리전트 아파트’로 발전하였다. 인터넷이나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이용한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가정의 TV, 냉장고, 에어컨, DVD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등의 디지털 가전기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격제어 방식은 주택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택 내·외에서의 가족생활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적인 주거 생활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 아파트는 90년대가 되면 실내 환경까지 기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실내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설비가 광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90년대 아파트 부대시설로 수영장, 볼링장 등의 스포츠 설비가 증가하고 있던 것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연관이 있다(신화경, 1998). 아파트 실내 환경의 질을 높이는 공기청정시스템,

자동정화, 정수시스템, 중앙집진식 청소시스템이 쾌적하고 건강한 아파트 실내 생활을 보장해주는 설비로 광고를 장식하고 있었다. 아파트가 편리함을 제공하는 주거 공간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보장해주는 곳이 되었다.

III. 주거 생활의 기술화⁵⁾로 본 한국주거의 근대화 논의

1. 사는 기계(Living Machine)로의 주거 공간이 가져온 주거 기능의 효율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는 지속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용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성장과 서구화, 그리고 근대적인 삶의 표상이기도 했다. 새로운 기술력이 동원된 설비를 갖춘 아파트

5) 기술화라는 용어는 독일 Technisierung에서 직역한 것이다. 이는 “Technisierung der Arbeitswelt”와 같이 쓰일 때 노동 과정 등에 기술이 개입하여 이를 보완 혹은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생활 세계에 기술이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뜻에서 “Technisierung der Lebenswelt”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는 비효율적인 전통적인 주택에 대비되어 곧 '근대적'인 것으로 부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탄아궁이에서 연탄보일러로, 단독 기름보일러에서 중앙공급식 난방으로 난방 연료와 설비가 변화함으로써 난방과 관련된 주부들의 가사노동 부담은 크게 경감되었다. 또한 가스 공급과 함께 보급된 가스레인지 역시 취사 노동을 한결 수월하게 해주었다. 이밖에 동선 효율성과 주부 신체를 고려한 싱크대가 갖추어진 아파트의 입식부엌도 주생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부의 재생산 노동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시간을 줄여놓았다.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면서 아파트 대부분에서 부엌의 바닥 높이가 없어진 것도 노동 경감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아파트 광고에 나타난 부엌, 난방, 취사 부분의 설비 변화는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기계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주거기능의 효율화를 가져왔다. 70, 80년대에는 이러한 설비들이 개별적으로 재생산 노동 영역에 결합하기 시작하더니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기계 설비로 인한 노동의 대체는 이후 90년대 들어와 통합된 '사는 기계'로 주거 공간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주거 공간이 하나의 기술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주부들은 '사는 기계'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주부가 아니라 지능형 주택을 관리하고, 이 주택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명령을 전달하는 가사 관리자가 된 것이다.

또한 90년대 정보통신의 발달, 가전기기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주거공간은 점차 통합적인 첨단 기계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보 기술의 발달에 기초한 인텔리전트 시스템과 홈오토메이션은 부엌은 물론, 거실 등 아파트 주거 공간에 설치된 개별 기기들을 통합해 놓았다. 인터넷과 초고속 통신망의 발달은 이렇게 주거 공간이 하나의 기술 시스템으로서 발달해가는 경향을 더욱 촉진시켜놓을 전망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개발과 연관된 지능형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이 설계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이 자동화 시스템에 따르면, 조명과 온도 습도 조절, 가전제품의 전자동 원격제어 및 안전관리도 모두 통합된다.

아울러 90년대 이후 작업의 합리성과 공간의 효율성과 더불어 미적인 측면까지도 강조한 빌트인 개념은 건축적 공간과 설비를 일체화시켜 주거공간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기계화한 대표적 경우이다. 부엌에서 이용되던 가전제품들이 빌트인 양식으로 부엌 가구와 통합한 이후 더욱 진화하여 가전, 가구, 건축이 통합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첨단화된 설비가 주거공간의 기능적 향상은 물론 물리적 속성까지도 변화시킨 것이다.

2. 설비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주거 생활의 다양화

아파트 주거공간의 기술화는 기존 기능을 기계적인 설비로 대체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생활

행위와 그것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의 탄생을 가져다주었다. 70년대 아파트의 표준 설비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텔레비전 공동안테나와 전화배선이다. 공동안테나의 구비로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주거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의 여가활동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거실은 식사 행위가 끝나고 난 후 모든 가족이 둘러 앉아 TV를 시청하는 장소로 변화했다. 거실에 들어온 TV는 사적인 주거공간에 공공영역이 침투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TV를 통해 사람들은 사적인 공간에 기거하면서 공적인 사건들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추상적 의미에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가 매우 희미해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TV를 시청한다는 행위는 주로 밖에서 이루어지던 여가행위가 주거 내부공간으로 들어온 것이기도 하다.

90년대에 진입하면 정보통신 기술이 주거 공간에 접목되면서 이런 여가활동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 말에 등장한 유성 케이블에 이어 위성방송 안테나,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속속 도입되어 인터넷을 통한 영화, 음악 감상 등 여가 활동의 내용은 더욱 다양해졌다. 이들 첨단 정보기술의 등장은 사적공간으로서의 주거 공간의 의미에 큰 변화를 주었다. 실시간 정보통신 설비들이 주거공간에 통합되면서, 공적인 공간과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70년대 일방향 미디어인 TV 보다는 초고속 통신망은 쌍방향 미디어 활용을 높여주어 주거공간 내에서도 공적인 공간에 실시간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편 첨단 공기청정 시스템, 자동정화 시스템 등 90년대 건강,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등장한 인텔리전트 시스템이 기존 설비와 결합하면서 주거의 기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주생활도 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욕실을 통해 전통 주거보다도 향상된 위생 기능을 제공하던 70년대 아파트 공간은 90년대가 되면 건강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장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기능은 각종 센서나 정보 기술과 결합되면서 첨단화되었다.

부엌 역시 부엌가구의 도입과 빌트인 가구의 보급으로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하여 가족들이 모이고 여가,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주거 공간이 기계적 제어기술로 조정되는 시스템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주부가 도맡아야 했던 가사관리 행위⁶⁾는 모든 가족구성원의 것이 되어 원격조정 장치 등을 사용해 공동의 가사노동 수행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주부의 잉여

6) 하지만 이런 설비의 발달이 평등한 주생활을 보장하지 않음은 최근 맞벌이 부부의 가사 노동 분담 시간에 관한 조사가 잘 보여준다(조선일보, 2006.9.27). 버튼 하나로 조정될 수 있는 세탁기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즉, 가사 노동에 대한 오랜 관습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한, 설비 발달이 자동적으로 평등한 주거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가정 내 평등화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또 다른 측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시간은 여가활동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때의 여가활동은 가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의 생활로 영위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3.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이 가져온 주거공간의 개별화와 개인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사회공동체와 가족, 가족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특히 TV의 보급은 60년대까지 마을단위로 공동의 여가생활과 접촉이 이루어지던 생활을 급속히 바꾸어놓았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가족단위로 TV를 시청하며 외부와 고립된 사생활을 누리게 된 것이다. 70년대 아파트 거실에서 TV를 보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은 스위트홈의 대표적 표상이었다.

전화의 보급 역시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웃과 직접 접촉하고 만나는 교류행위는 전화 음성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아파트는 공동생활공간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생활은 공동체 문화가 사라진 고립되고 소외되는 현상을 보인다. 각 단위주거공간은 외부로부터의 익명성을 담보해주는 공간이 된 것이다. 정보통신 설비는 아파트가 외부와 잘 연결된 주거공간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아파트 내부에서의 주거생활이 더욱 강조되어 물리적 접촉은 오히려 감소하는 방향으로 주거생활을 변화시키기도 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

80년대 말 광고에서 보이듯이 각 방에서 TV 수신이 가능해지고 통신망 역시 개인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주거공간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TV를 시청하는 대신 각 방으로 흩어져 가족 공동체로부터 고립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전화 역시 개별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각 개인공간은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공간으로 변화했다.

90년대 이후 보급된 초고속정보통신망, 위성방송시스템 설치 등 최첨단 정보 통신 시설은 '사이버아파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다. 이는 가상공간 안에서의 새로운 교류문화를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가족구성원과 외부, 또는 주거공간 내의 개인과 개인의 물리적 대면행위는 오히려 줄어들어 점점 개인화를 심화시켰다.

IV. 결 론

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나타난 근대화 과정에서 주거설비의 진보는 큰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택 기능의 현대화를 구현한 것이 새로운 주택 유형인 아파트였으며 아파트는 도입초기부터 주거문화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코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파트 광고를 통해 주거공간의 설비가 진보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시대에 따라 첨단설비가 주거생활의 내용을 변화시켜 온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다. 아파트 광고에서 드러나는 아파트 설비는 당 시대의 가장 발달된 설비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각 시기별로 강

조하는 설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한국 주거에서의 설비 진화의 역사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초기 아파트에서는 기계 설비의 도입을 통한 주거 기능의 효율화가 주된 관심사였지만 90년대 이후 시기에는 일종의 기술 시스템으로 주거공간이 구성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70년대부터 이어진 설비 변화들에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거공간이 이들 설비들과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주거공간에서는 각종 첨단 장비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행위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면서 주생활의 일부를 이루게 된 것인데, 이를 우리는 '주거생활의 기술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종 기계 설비, 현대 기술들이 주거공간으로 유입되면서 주거생활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새로운 여가 활동이 출현했으며, 새로운 설비나 시설들은 주생활의 일부를 대체하기도 했고, 주거 기능은 더욱 개선되고 확장되었다. 주거생활의 기술화는 구체적으로는 주거기능의 효율화, 주거생활의 다양화, 주거공간의 개별화 현상을 초래했고, 이는 주거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이렇게 아파트 공간이 기술화되는 현상은 한편으로는 주택의 상품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첨단 기술의 도입이 주거 구성원들의 삶을 지원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 차별화된 상품으로 주택을 포장한다는 의미도 갖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파트는 그 보급 과정에서 과도하게 첨단설비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획일성'과 같은 한국 주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해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거공간에 도입된 이러한 기술력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주거가 근대적 주거로 전환되는데 많은 부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주거 설비의 진보 및 생활의 기술화는 앞으로 주거공간 계획에 있어서 여러 다른 측면들과 함께 더욱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성희(2002),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도서출판 신정.
2. 김영호(2005), 위생설비 발전사, 설비저널 34권 6호. pp.24-31.
3. 루쓰 코완/김성희의 역(1997),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신정.
4. 전완길 외(1995), 우리생활문화 100년, 장원. p.321.
5. 제일기획 마케팅연구소(1997),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행동.
6. 김대현(2004), IMF 기간 일간 신문 분양 광고에 나타난 아파트 단지 옥외공간의 차별화 내용 및 요소, 한국조경학회지 32권 4호. pp.71-82.
7. 김미희 · 윤복자(1992), 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 사용방식(I)-안방, 거실, 식당/부엌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10호. pp.25-39.
8. 김승연 · 손세관(2000), 신문광고에 나타난 우리나라 아파트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아파트 신문 광고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 1호. pp.103-106.

9. 김영인 · 김기숙(1990), 한국 대도시 가정의 부엌설비 및 조리기구에 관한 실태조사. 제1부: 부엌설비 및 식사현황에 관하여, 한국조리과학회지 6권 1호. pp.53-60.
10. 김영호(2005), 위생설비 발전사, 설비저널 34권 6호. pp.24-31
11. 김혜정(1997), 우리나라 근대 주거공간의 변천을 통해 본 여성 주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가족생활연구논총 2집 pp.31-48.
12. 노미경 · 황연숙(2005),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실내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 6권 4호. pp.211-219.
13. 신화경(1998), 신문광고를 통해 본 시대별 주거가치 변화에 관한 연구 -아파트 관련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9권 1호, pp.75-85.
14. 오용선 · 신경철(2006), USN 환경을 도입한 국내 35평 아파트의 유비쿼터스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의 설계, 게임&엔터테인먼트 논문지 2권 1호. pp.78-86.
15. 윤복자 · 최형선 · 이선미 · 이수진(1990), 주거형태 변천과정에서 본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정립. 제1부: 부엌변천, 대한가정학회지 28권 3호. pp.67-85.
16. 윤정숙 · 이은경(1990), 한국 도시주택에 있어서 주생활 양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전주,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권 3호. pp.53-65.
17. 이기영 · 김성희(1995), 과학기술이 가사노동수행양식에 미친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권 1호. pp.71-81.
18. 이병룡(1996), 지역별 공동주택의 차별화 아이템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10호. pp.67-73.
19. 건설교통부(1980), 아파트 주거환경통계. 주택자료 37, 53.
20. 대한주택공사(1995a), 공동주택 생산기술의 변천에 관한 연구, pp.39-40; p.72.
21. 대한주택공사, 1983 - 1999, 1995b, 아파트 주거환경통계
22. 대한주택공사(1997), 주택통계편람. 조사, 97-12.
23. 시정개발연구원(2001), 서울20세기 공간변천사.
24. 조선일보, 동아일보, 1970년 1월~1999년 12월.
25. 여성중앙 1976년 5월호
26. 통계청 www.nso.go.kr.
27. Bijker, Wiebe, Thomas P. Hughes, and Trevor Pinch (1989),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The MIT Press.
28. Dietz, Simone (1992), Die Technisierung der Lebenswelt, in: Peter Scheffe (ed.), Informatik und Philosophie, BI Wissenschaftsverlag.
29. Hughes, Thomas P. (1983), Networks of Power: Electrification in Western Society 1880-1930,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接受: 2007. 4. 18)